

기쿠치 계곡의 하이킹 코스

기쿠치 계곡은 방문자 센터를 기점으로 기쿠치가와 강변을 올라가는 두 산책로를 따라 산책할 수 있다. 짧은 산책로는 약 1 킬로미터로서 걸어서 약 40 분, 긴 산책로는 약 2 킬로미터로서 걸어서 1 시간 20 분 정도 걸린다. 두 산책로 모두 딱히 위험하지는 않으며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

짧은 산책로는 방문자 센터를 출발하여 계곡에서 가장 많이 사진을 찍는 레이메이노타키 폭포 앞에서 강에 놓인 다리를 건넌다. 단풍과 이끼의 명소인 모미지가세를 거쳐 류가부치 용소에 도착하면, 다리를 건너 계곡에서 가장 크고 폭포수 소리도 큰 폭포 중의 하나인 텐구다키 폭포를 볼 수 있다. 그 후 다시 출발 지점을 향해 강의 흐름을 위에서 바라보면서 방문자 센터까지 완만하게 내려온다.

긴 산책로는 짧은 산책로와 같은 코스로 류가부치 용소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온주산만타키 폭포를 향해 삼림 지대를 올라간다. 크고 작은 다양한 모습의 폭포가 연이어진 온주산만타키 폭포 너머에는 흐름이 고요한 히로카와라가 있으며, 산책로는 개구리와 도롱뇽, 수생 곤충의 서식지인 작은 연못을 가로지른다. 히로카와라에 놓인 다리 앞에는 전망대가 있어 산책로에서 되돌아가는 지점이 되고 있다. 그 뒤 강 위의 급한 산의 경사면을 따라 구불거리며 나아가다 텐구다키 폭포에서 짧은 산책로에 합류한다.

기쿠치 계곡에서는 여행을 즐기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한, 가이드가 있는 ‘헬스 투어리즘’ 워킹 투어도 개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과 요금은 기쿠치관광협회로 문의하면 된다.